

‘봉중근의 어퍼컷’ 日 심장 쫓는다

오늘 오전 10시30분 결승... 한·일 야구전쟁 마지막 승부
 한국 “위대한 승리 일군다”...봉중근-이와쿠마 선발 대결



日, 야구종가 美 꺾고 결승 진출

설마했던 한국과 일본의 ‘야구전쟁’이 결국 막판까지 오고 말았다. 대항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야구전쟁’은 두 팀이 나란히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 결승에 진출, 24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마지막 패권을 다투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은 미국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야구종가 미국을 비롯해 중남미 강호들을 모두 물리친 아시아의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의 전력에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다.

미국 현지의 흥미 위주의 관전 태도와 달리 한국과 일본 양국은 자존심을 걸고 한 판 대결을 벌여야 한다. 이미 4차전나 맞붙어 결과는 2승2패, 누구도 지기 싫은 승부가 됐다.

‘승부사’ 김인식 감독은 인터뷰 때 마다 “일본이 최강 전력”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3년 전 김 감독은 1.2라운드에서 일본을 두 번이나 꺾었지만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1패를 당해 첫 우승의 영광을 일본에 양보해야만 했다.

이번에도 마지막 결승에서 일본의 행거를 지켜보게 된다면 그동안의 투혼이 한탄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에 두차례나 무릎을 꿇어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던 일본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목표가 ‘타도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전만 해도 일본은 간판스타 스즈키 이치로가 “30년동안 못이 기계 해 주겠다”며 오만의 극치를 부렸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하라 다쓰노리 일본 감독이 “도전하는 자세로 나서겠다”며 자세를 숙인 채 철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양 팀 모두 적지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WBC 결승전에는 한국은 새로운 ‘일본킬러’로 떠오른 봉중근(LG)을 선발투수로 예고했고 일본은 지난해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한 이와쿠마 히사시(라쿠텐 골든이글스)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다.

둘은 지난 9일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라운드 1-2위 결정전에서 한 차례 격돌을 벌여 봉중근이 1-0으로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봉중근과 이와쿠마는 이번 대회에서 워낙 뛰어난 피칭을 보여 양 팀 벤치의 기대가 크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교체될 전망이다.

한국은 봉중근에 이어 ‘무쇠팔’ 정현욱(삼성)은 물론 선발 요원인 류현진(한화)과 김광현(SK), 특급 마무리 임창용(야쿠르트) 까지 순번에 관계없이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일본 역시 이와쿠마에 이어 ‘마쓰자카 2.0 버전’이라는 다르빗슈 유(니혼햄), 한국에 강했던 스기우치 토시아(소프트뱅크), 와타나베 슌스케(자바 롯데)에 이어 마무리 후지와라 규지(한신)가 몽땅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에서는 김현수-김태균-이대호-추신수로 이어지는 한국의 중심타자와 아오키 노리히코-이나마 아쓰노리-오가사와라 미치히로의 일본 클린업트리오 싸움이다.

한국은 최상의 타격 감각을 보유하고 있는 김현수와 이번 대회 최고의 클러치 히터로 떠오른 김태균에 이어 되살아난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한 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은 주포 무라타 슈이치가 허벅지 부상으로 중도하차 했지만 대신 4번을 깨친 이나바의 방망이가 미국과 준결승에서 날카롭게 들었고 9번 가와사키 무네히로는 발군의 기동력을 발휘해 요주의 인물로 꼽히고 있다.

양팀 벤치 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한박자 빠른 투수교체와 절묘한 대타, 대수비, 대주루 요원을 투입하는 탁월한 용병술을 보인 ‘승부사’ 김인식 감독과 초호화 멤버로 화려한 야구를 추구하는 ‘황태자’ 하라 감독중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지 세계 야구팬들이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야구전쟁’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일본은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WBC 준결승에서 타선의 응집력을 자랑하며 야구종주국 미국을 9-4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봉중근〉



김연아 “한국 화이팅!... 승리 기운 받아 나도 세계선수권 우승”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 결승에 진출한 야구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연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시작한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첫 공식연습을 마치고 나서 “야구 대표팀이 WBC 결승전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라며 “야구 대표팀의 승리 기운을 이어받아서 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김연아는 지난 22일 캐나다 토크토를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야구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WBC 결승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아쉽게도 김연아는 로스앤젤레스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짐 정리와 선수등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의 관계자는 “그동안 토크토에서 훈련을 하느라 WBC 소식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솔직히 김연아가 피겨 이외의 다른 종목에 즐겨보지 않지만 야구 대표팀에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연아는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시니어피겨선수권대회(23~29일·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앞두고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김연아는 2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치러진 여자 싱글 공식연습을 마치고 나서 “컨디션도 다름보다 좋고 연습도 무난히 끝났다”라며 “소프트프로그램에 포함된 점프는 다 잘했는데 스텝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캐나다 토크토에서 훈련할 때는 시즌 마지막 대회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막상 이곳에 서니 긴장된다”라며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번 대회 우승이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맘대로 안될 수도 있다. 연습한 만큼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이날 소프트프로그램 배경음악인 ‘죽음의 무도’에 맞춰 연습하다가 스텝 부분에서 발이 엉키면서 넘어져 스테이플스 센터를 찾은 피겨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연아의 연습과정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실수여사다.

이에 대해 김연아는 “빙질이 바뀌면 스텝에서 예지(스케이팅날)를 사용하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을 잘못했다”라며 “항상 있을 수 있는 실수다. 앞으로 주의하면 된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